

안방극장 '특수직'이 뜬다

그냥 의사·변호사는 지겨워
장르극 범람 유사 설정 피로감
세분화 된 직업군 발굴
독특한 캐릭터 묘사로 신선

판사, 검사, 변호사부터 의사, 경찰, 교사 등 드라마 속 전문직은 이제 장르극과는 뿔 수 없는 짝이 됐다.

하지만 최근 드라마 속 전문직들은 같은 소재를 다루는 기존 작품들보다 좀 더 세분화하고 특수한 성격을 갖거나, 또는 고정관념에서 변주를 준 독특한 캐릭터로 묘사된다.

방송 4회 만에 시청률 10%(닐슨코리아)를 돌파한 SBS TV 금토극 '의사 요한' 속 주인공차요한(지성분)은 기존 드라마에서 자주 등장한 외과 의사가 아닌 통증의학과 전문의이다.

통증의학과라는 소재에 맞춰 극 도입부는 요한이 현재 의술로는 도무지 치료가 수 없는 환자의 고통을 없애주기 위해 안락사를 선택했다가 옥살이를 하게 된 이야기로 시작했다. 4회에서 의사로 복귀한 요한은 앞으로 감옥에서 인연을 맺은 강시영(이세영)과 함께 통증의학의 세계를 기반으로 한 의학과 인명의 가치를 역설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을 보인다.

지난주 일제히 스타트를 끊은 수목드라마 중에서도 특수전문직 또는 기존 드라마 속 전문직의 고정관념을 깬 캐릭터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SBS TV '닥터탐정'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들이 미확인질병센터(UDC)라는 기상의 기관을 바탕으로 산업현장에서 은폐된 재해와 감춰진 질환들을 발굴하고 원인을 규명하는 이야기를 담았다.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를 소재로 한 초반 스토리부터 유명 뺑집에서 발생한 직원의 원인 불명 호흡기 질환 등 다양한 에피소드가 실제 사회에서 벌어지는 산업재해들을 소재로 해 리얼리즘을 부각한



KBS 2TV '저스티스'



SBS TV '닥터탐정'

다. 연출을 '그것이 알고 싶다' 등 시사교양 프로그램을 만든 박준우 PD가, 극본은 산업의학전문의 출신 송윤희 작가가 맡아 이러한 특색이 더욱 극대화됐다.

KBS 2TV '저스티스'와 OCN '미스터 기간제'는 둘 다 변호사를 주인공으로 내세우지만, 기존 드라마에서 늘 보던 절대적으로 정의롭고 착하기만 한 변호사가 아니라는 점에서 차별화를 꾀했다.

'저스티스' 속 변호사 이태경(최진혁)은 업계 최고의 승소율을 자랑하지만 '악마' 송우용(손현주) 회장과 손잡은 이후 고위층의 온갖 '쓰레기 같은' 사건들을 도맡아 웬만하면 무죄를 끌어내는 인물이다.

'미스터 기간제' 속 기무혁(윤근상)도 승소를 위해서라면 법정에서 '메소드 연기'까지도 펼칠 수 있는, 냉소적이고 능청스러운 국내 대형 로펌의 간판 에이스 변호사이다. 그는 천명고 살인사건 변호를 맡게 되면서 기간제 교사로 천명고에 위장취업한다.

물론 두 사람은 결과적으로 '저스티스'(justice·정의)를 얘기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에는 KBS 2TV '닥터 프리즈너' 처럼 선(善) 또는 복수를 달성하기 위해 잠시 악(惡)의 길을 선택하기도 하는 캐릭터를 내세워 기존 장르극 속 주인공과 변주를 꾀하는 사례가 늘었다.

OCN 주말극 '왓쳐'는 익숙한 경찰이 주된 배경이지만 경찰 중에서도 감찰반을 소재로 한다. 내부의 감시자들로 불리는 감찰

을 내세운 드라마는 '왓쳐'가 처음이다. '심리 스릴러극'을 지향하는 '왓쳐'는 기존 경찰 드라마처럼 액션과 감성적인 에피소드를 크게 내세우지 않고도 감찰반의 '눈치게임'이라는 속성을 활용하며 치밀한 긴장감을 자랑한다.

이밖에도 종영을 앞둔 MBC TV 월화극 '검법남녀'는 법의학의 세계로 시청자를 초대해 시즌2까지 안정적으로 제작되며 인기를 누린다. 외국 드라마 중에서는 '크로싱 조단'과 '본즈' 등 법의관을 다룬 작품이 과거에도 꽤 있었지만, 국내 작품 중에서는 '검법남녀'가 최초로 다름없어 마니아 팬층을 형성하는 데 성공했다.

실제 법의관을 배우자로 둔 민지는 작가가 풍족한 에피소드를 바탕으로 새로운 세계를 그려낸 것과, 노도철 PD의 감각적인 연출이 감점이다.

방송가에서는 최근 몇 년간 너무 많은 장르극이 쏟아지면서 비슷비슷한 설정과 직업군에 시청자의 피로도 높아졌기 때문에 직업을 세분화하는 시도가 나온다고 분석한다.

한 드라마 제작사 관계자는 28일 "드라마 속 전문직의 세계는 일반인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긴박한 스토리를 풀어내기에 좋은 소재였다"라며 "하지만 유사한 설정으로 시청자의 피로도가 누적된 상황이라 기존에 없던 좀 더 세분된 새로운 직업과 특수한 캐릭터를 발굴하게 된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SBS TV 금토극 '의사 요한'에서 지성이 연기하는 주인공 차요한은 기존 드라마에서 자주 등장한 외과 의사가 아닌 특수전문직인 통증의학과 전문의이다.

/연합뉴스

김태호PD-유재석 본게임 돌입
MBC '놀면 뭐하니?' 4.6%

MBC TV 간판 예능 '무한도전' 시즌 종영 후 약 1년 만에 다시 손잡은 김태호 PD와 유재석에 토요일 저녁 시청자의 눈도 집중됐다.

28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30분 방송한 MBC TV 새 예능 '놀면 뭐하니?' 첫 방송 시청률은 4.3%-4.6%를 기록했다.

전날 방송에서는 유재석의 릴레이 카메라가 유희열, 정재형, 장윤주 등으로 이어지는 모습이 담겼다. 스타들은 음악, 부티 등 각각의 콘텐츠로 어설프지만 재밌는 형식으로 릴레이 카메라를 이어갔다.

최근 트렌디한 장르인 '셀프 카메라'와 주류 포맷인 관찰 예능을 김태호 PD 나름의 방식으로 접목한 점이 신선함과 안정감을 동시에 줬다. 또 유재석-하하 등 '무한도전'으로 익숙한 멤버들뿐만 아니라 예능에서 활약하는 유희열, 장윤주 등의 일상을 공개 하면서 앞으로의 콘텐츠에 기대를 걸게 했다.

다만 김 PD 특유의 독특한 연출과 확장형 포맷, 신선한 콘텐츠를 기대한 시청자들에게서는 "생각보다 진부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놀면 뭐하니?'의 합류가 토요일 저녁 예능 판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도 관심이었지만, 워낙 방송 초반인 데다 최근 토요일 저녁 예능은 프라임타임 치고 재방송을 편성할 경우가 많아 큰 변동은 없었다. 전날 '놀면 뭐하니?'와 동시간대 방송한 KBS 2TV '블후의 명곡'은 5.3%-7.4%, SBS TV '백종원의 골목식당' 재방송은 3.2%-4.4%였다.

/연합뉴스

힙합드라마 본격 있나요?

SBS '힙합왕' 다음달 9일 첫 선

SBS TV는 힙합을 소재로 한 6부작 금요드라마 '힙합왕'을 다음 달 9일 밤 11시 10분 처음 선보인다고 예고했다.

이 작품은 본격적인 힙합 문화 현상과 그 세계를 담아낼 정통 힙합 음악, 그 속에서 성장하는 청년들 이야기를 담는다.

아이돌 그룹 인피니트의 이호원, 크로스진의 신원호, 걸그룹 에이프엘의 이나은, 모델 한현민이 주인공들로 낙점됐다. 종견 연기자 김영욱, 유서진, 안다비, 박노식, 주원탁, 최유리 등이 함께한다.

지난해 12월 촬영을 시작한 드라마는 현재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고 후반 작업 중이다. /연합뉴스

TV프로그램

29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광장	00 여름특선 다큐멘터리 3일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특선 인간극장(재)	00 생생정보 스페셜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모두 다 쿵따리	35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0 닥터 365 35 수상한 장모
9	30 KBS 뉴스	00 여름아 부탁해(재) 40 그녀들의 여유만만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45 검법남녀 시즌2(재)	10 SBS 뉴스 20 KBC 생활뉴스 30 살맛 나는 오늘
11	00 다크 공감(재) 50 UHD 한식의 마음(재)	00 퍼퓸(재)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 12		00 12 MBC 뉴스 20 신입사관 구해령(재)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교육시리즈 55 정재영의 이수인
1	00 네트워크기획 문화산책 50 연중기획 -빛고을행복아카데미	1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30 헬로키즈 신비한 자연교실 2 50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50 공감다큐, 사람(재)	00 KBS 뉴스타임 10 생생정보 스페셜		00 뉴스브리핑
3	10 전라도 매력청(재)	00 자동차부착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0 뽀뽀뽀 모두야 놀자 스페셜 50 뽀뽀뽀 모두야 놀자	
4	00 2019 방통위 방송대상 수상작 어머의 바람	00 그녀들의 여유만만(재)	20 모두 다 쿵따리(재)	00 월드베스트 다크 그곳에 가면 55 닥터 365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영화가 좋다(재)	00 5 MBC 뉴스 25 출발! 비디오 여행 스페셜	00 SBS 오뉴스 45 KBC저녁 뉴스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25 오매 전라도	00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7	00 KBS 뉴스 7 40 특선 다큐멘터리 다이너스티, 아생의 지배자들	50 태양의 계절	30 MBC 뉴스데스크	00 법률 365 05 생방송 TV블로그 꿈지락
8	30 여름아 부탁해	30 글로벌24 55 옥탑방의 문제아들 스페셜	55 검법남녀 시즌2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생활의 달인
9	00 KBS 뉴스 9			
10	00 가요무대	00 여름특집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	05 스트레이트	00 동상이몽2 너는 내운명
11	00 오늘밤 김제동 40 저널리즘 토크쇼 J(재)	10 안녕하세요	05 문화콘서트 난장	
12	35 KBS 뉴스 45 이웃집 찰스(재)	35 옥탑방의 문제아들 스페셜(재)	05 스포츠 다이어리 20 UHD 특선 다크 <북극의 비밀>	00 나이트 라인 30 앙코르 고향견문록 스페셜

EBS1

05:00 왕초보 영어	10:30 한국기행(재)	17:00 EBS 뉴스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20 명탐정 피트
06:00 한국기행(재)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30 페파 피그(재)
06:20 세계테마기행	12:00 EBS 정오뉴스	18:00 생방송 특목! 보니하니1~5
07:00 로보가 폴리	12:10 극한직업 스페셜	19:00 제로니모 스티븐의 모험
07:15 꼬마버스 타요	13:00 다크 오늘	19:30 생방송 판다다
07:30 뽀뽀뽀 뽀로로	13:10 최고의 요리비결	20:00 갤럭시 프로젝트
07:45 페파 피그	13:40 기획특강-지식의 기쁨	20:30 아기 동물 귀여워
08:00 땡땡땡 유치원1~2	14:30 꼬마버스 타요(재)	20:40 세계테마기행
08:30 몬카티	15:00 출동! 피자마 삼총사	<물 만난 아시아 1부 황금빛 물 세상 방글라데시>
08:45 최고다! 호기심딱지	15:30 뽀뽀뽀 뽀로로(재)	21:30 한국기행
09:00 마사와 곰	15:45 출동! 슈퍼왕스(재)	<우리 동네 피서 명당 1부>
09:15 출동! 슈퍼왕스	16:00 최고다! 호기심딱지(재)	21:50 EBS 다크프라임
09:30 원더볼스	16:15 세미와 매직큐브	22:45 글로벌 아빠 찾아 삼만리
09:4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16:30 땡땡땡 유치원1~2(재)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p>36년생 점점 가속도가 붙는다. 48년생 견인불발의 자세로 조지일관한다면 무난할 것이다. 60년생 천 길 방죽도 개미구멍으로 무너진다. 72년생 무가치하다면 의미를 부여할 이유가 없으니라. 84년생 변화없이 일관되게 진행한다면 소기의 목적에 이른다. 행운의 숫자 : 84, 94</p>	<p>42년생 단단히 각오하고 탐비지 않으면 아니 된다. 54년생 실력부터 키우고 볼 일이다. 66년생 원년부터 따져봐야 한다. 78년생 예의 주시하고 있어야만 기민한 대응을 할 수 있다. 90년생 의심스러운 국면이 여러 곳에서 보이니 잘 살펴야 하니라. 행운의 숫자 : 38, 19</p>
<p>37년생 발상은 좋으나 침묵하고 있다면 무의미하다. 49년생 부유하지 못 하는 안타까움이 있다. 61년생 대체로 순조로운 편이나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73년생 준비해왔던 것을 실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85년생 가장 절실한 일에 몰두하자. 행운의 숫자 : 35, 21</p>	<p>43년생 마음을 비우는 것도 괜찮다. 55년생 미래 지향적인 안목이 절실하다. 67년생 겉은 거칠더라도 깊은 의미가 담겨 있으니라. 79년생 직접적으로 필요한 사항만을 우선 적용해야겠다. 91년생 반복하고 있는 것이 능사는 아니니 변화를 도모해 보자. 행운의 숫자 : 22, 74</p>
<p>38년생 순리대로라면 행운의 여신이 문을 노크하라. 50년생 회자정리하는 법이다. 62년생 아직은 활발하나 갑자기 중단 될 수도 있다. 74년생 방법까지 고려한다면 금상첨화이다. 86년생 분명한 소신을 갖고 임해야 후회하지 않는다. 행운의 숫자 : 20, 87</p>	<p>44년생 분명히 하라. 56년생 사소한 것이 주원인으로 작용하는 위상이다. 68년생 막연한 미련을 버리고 결단성 있게 정리해버려야 추진력이 생긴다. 80년생 반드시 근거를 남겨 두자. 92년생 치밀하게 대응하지 않는다면 커다란 차질을 빚게 된다. 행운의 숫자 : 73, 71</p>
<p>39년생 선택을 잘 한다면 뒷일이 수월 해지리라. 51년생 애를 태운다. 63년생 마무리하고 나아 후일을 도모하기가 용이해진다. 75년생 주어진 국면에 적절해야만 제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87년생 편견에 사로잡힌다면 오류를 범하기에 충분하다. 행운의 숫자 : 92, 08</p>	<p>45년생 한숨을 쉴 일이 생긴다. 57년생 원리를 파악하는 것이 유리하다. 69년생 소신껏 일관되게 추진해 나간다면 반드시 성취하게 되어 있다. 81년생 계획대로 이행될 것이니 최선을 다하면 되니라. 93년생 객관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행운의 숫자 : 42, 32</p>
<p>40년생 당면 과제에 집중해야 할 증거대환 시기에 와 있다. 52년생 심사숙고한 다음에 결정하는 것이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으니라. 64년생 양면성을 띠고 있다. 76년생 당황하지만 않으면 무난할 것이니라. 88년생 상대의 영향력 하에 놓이게 된다. 행운의 숫자 : 87, 72</p>	<p>34년생 반드시 욕망을 가려야 한다. 46년생 잠으로 남감하라. 58년생 폐단을 제거한 후에 적절한 방향으로 유도해야 한다. 70년생 마음을 안정시키고 태산처럼 있되려면 반전 되리라. 82년생 과감한 변화를 보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행운의 숫자 : 86, 37</p>
<p>41년생 기회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가니라. 53년생 진행해 오던 방향이 행운과 일치하겠다. 65년생 설익은 상태이니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 보자. 77년생 문제를 해결할만한 의문점이 보인다. 89년생 탄력이 붙으면서 비약적인 발전을 한다. 행운의 숫자 : 37, 43</p>	<p>35년생 상대의 진의를 파악하기 힘들 것이다. 47년생 과잉 반응을 보일 필요까지는 없다. 59년생 의미 있는 하루가 전개될 것이다. 71년생 상대의 기대 심리를 저버리지 말라. 83년생 인식의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 있으니라. 행운의 숫자 : 34, 33</p>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100-9790-8237